

성동구내 어린이집 원아 부모의 소아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박유진 · 이슬지* · 윤지연 · 명성민**

제인한방병원 소아과

*자생한방병원 침구과

**중원대학교 의료보건학부

Abstract

A Survey on Parent's Recognition and Utilization Patterns of Oriental Medical Care of Preschool Students in Seong-Dong district

Park You Jin · Seul Ji Lee* · Yoon Ji Yeon · Sung Min Myoung**

Department of Pediatrics, Jein Oriental Medical Hospital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Jaseng Oriental Medical Hospital*

***Faculty of health science, Jungwo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ental recognition and utilizing patterns of oriental medical care in children who live in Seong-Dong district.

Methods

802 day-care center children's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recognition and utilizing patterns of oriental medical care, and 702 of the surveys were analyzed.

Results

1. 38.33% has received previous oriental medical treatments and most were received at the children's age under 12-24 months. Majority of the treatments took place in the clinical settings. By recommendation, some also received their treatment at the medical centers. One of the reasons why they receive oriental medical treatments was that they prefer to balance their treatment with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s along with the western's.
2. 53.85% of those who received oriental medical treatm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treatments. The effective treatment results were the major reason for the satisfaction.
3. 49.56% of those who had oriental medical treatments chose specific oriental medical facilities for the children's ailment. Most specific oriental medical facilities were local oriental medical clinics. Reputation fame were the main reason in choosing the clinics.
4. In 2009, 55.26% had received care in the specific oriental medical clinics for the diseases, such as respiratory symptoms, systemic symptoms, gastrointestinal symptoms, skin problems,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ease for infants, and respiratory symptoms, gastrointestinal symptoms, systemic symptoms, skin problems,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symptoms, urinary symptom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for toddlers.
5. The average duration of herbal treatment were 7-14 days, preferably 4-6 days, and preferred number of medical visits were once a week on Saturdays and preferred day for night cares were on Friday nights. Average treatment fee per treatment was less than 10,000 won which coincided with the preferred treatment fee per visit.
6. The very first medical institutions chosen by parents once their children are ill are the following; Western medical institutions, western medical clinics, pharmacies, oriental medical clinics, health centers, and lastly,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The major concerns in receiving oriental medical cares include pesticides in herbs and hazardous substances in heavy metals. Preferred form of oriental medicine was decoction, the negative feedback of oriental medicine was mostly due to the bitter taste of the oriental herbal decoctions. Preferred frequency of intake was twice a day with less than 10cc~20cc per single intake.

Conclusions

Taken all together, we conclude that the growing recognition of Oriental Pediatric medicine is needed among parents.

Key words : Status of children, Korean medicine, Recognition of Korean pediatric medicine

I. 緒論

한국은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복지 지향적 의료보험의 전 국민에의 확대 실시로 인해 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급증하였으며 의료기관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환자들의 서비스 요구도 확대되어 왔다¹⁾.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크게 변화하여, 의료가 단지 질병의 치료라는 1차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무병장수라는 인간의 오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²⁾. 또한 인구구조의 노령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양상변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서양의학적 접근방법의 한계, 한방의료제도의 발전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전통의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WHO, 2001) 등으로 인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방의료자원의 공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이런 실정에 발맞추어 꾸준히 한방의료 이용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⁴⁻⁸⁾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표본수 20대 이상의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보건의료 통계에 한의약 분야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한의약 의료정책 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 연구한 2008년 한방 의료 이용 실태 조사⁹⁾가 행해졌다.

이와 같이 한방 의료 이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는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 소아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방병원에 래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진 최⁴⁾, 유⁸⁾ 등의 논문이 있으나 이는 너무 오래되거나 한약에만 집중되어 조사 연구된 경향이 있고, 기존에 일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자는 성동구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에 관해 보고하고자 한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성동구내 00한방병원에서 어린이 건강 검진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모가 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어린이 검진 시행 전 설문지를 배포하여 어린이 검진 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5월 한달간 실시하여 총 80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792부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연령은 만 1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기가 720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는 1세 미만과 7세 이상이었다.

2. 연구 방법

1) 보호자 설문 조사(별첨1)

설문은 한방 의료 실태 조사⁹⁾ 및 관련 논문¹⁰⁻²⁾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가정에서 보호자가 작성케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성동구내 어린이집 원아 부모의 소아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2) 통계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ASW 18.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어떤 특징에 관하여 기술통계 산출
- (2) 어떤 결과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산출

3. 연구의 목적

- 1) 성동구내 어린이집 어린이의 한방치료 실태를 알아본다.
- 2) 성동구내 어린이집 원아 부모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III. 結果

1. 대상군의 일반적인 특징

성동구내 30곳의 어린이집에서 설문에 응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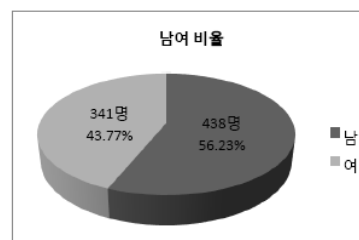


Figure 1. 대상군의 남녀 비율

설문 대상 소아의 비율은 남자가 56.23%인 438명 이었고, 여자가 43.77%인 341명이었으며 13명은 성별이 작성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Figure 1).

설문대상 소아에 대한 평균 개월수는 58.87개월이었으며, 최소 15개월부터 최대 159개월까지가 대상이었고, 나이로 환산하면 1세부터 13세까지이었고, 평균 연령은 4.46세이었다(Table 1).

또한 대상 소아의 키에 대한 분포는 3% 미만인 45명으로 6.47%이었으며, 3%이상 5%미만이 29명으로 4.17%, 5%이상 10%미만이 50명으로 7.18%, 10%이상 25%미만이 155명으로 22.27%, 25%이상 50%미만이 190명으로 27.30%, 50%이상 75%미만이 141명으로 20.26%, 75%이상 90%미만이 56명으로 8.05%, 90%이상 95%미만이

22명으로 3.16%, 95%이상 97%미만이 1명으로 0.14%, 97%이상인 7명으로 1.01%이었고, 96명은 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되었다(Figure 2).

대상 소아의 몸무게에 대한 분포는 3% 미만인 30명으로 4.29%이었으며, 3%이상 5%미만이 13명으로 1.86%, 5%이상 10%미만이 38명으로 5.43%, 10%이상 25%미만이 93명으로 13.29%, 25%이상 50%미만이 171명으로 24.43%, 50%이상 75%미만이 171명으로 24.43%, 75%이상 90%미만이 105명으로 15.00%, 90%이상 95%미만이 27명으로 3.86%, 95%이상 97%미만이 20명으로 2.86%, 97%이상인 32명으로 4.57%이었고, 92명은 몸무게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되었다(Figure 3).

본 자료의 백분율은 2007년 소아 성장 곡선¹³⁾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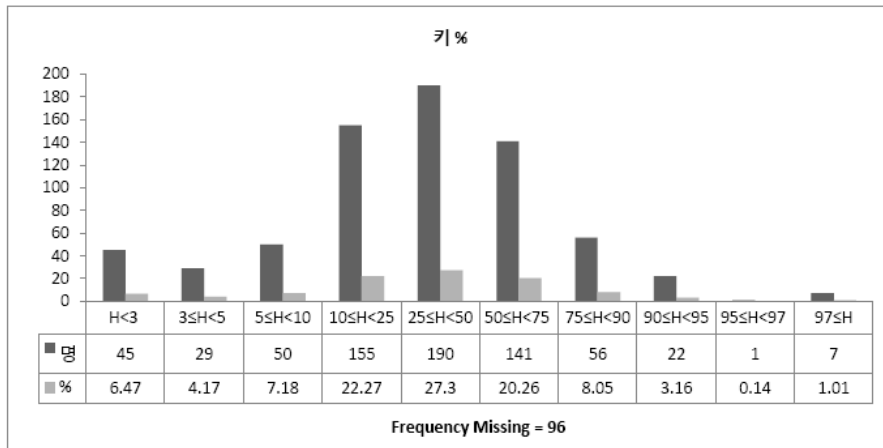


Figure 2. 대상자의 키 백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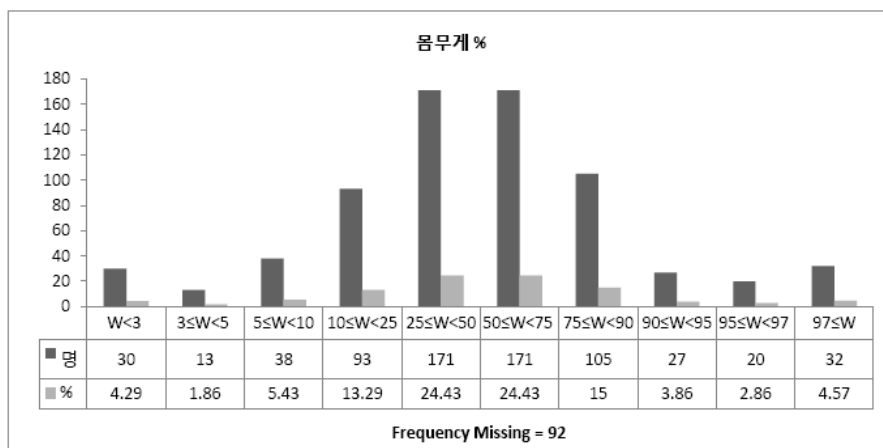


Figure 3. 대상자의 몸무게 백분율 분포

Table 1. 대상군의 개월수, 나이, 키

unit : months, years

Variable	Number	Mean	Std Dev	Minimum	Maximum
개월수	779	58.87	18.79	15.00	159.00
나이	778	4.46	1.57	1.00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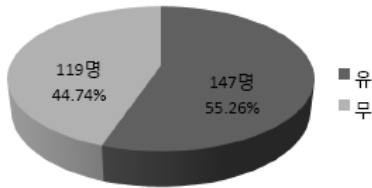


Figure 4. 2009년 1년간 한방진료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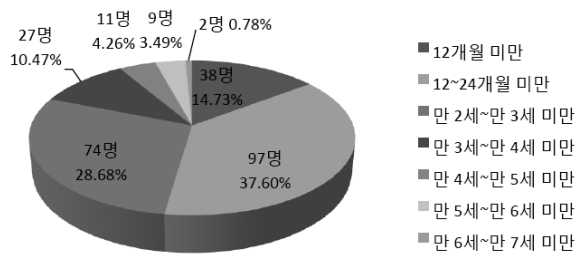


Figure 5. 한방진료를 최초로 받은 자녀의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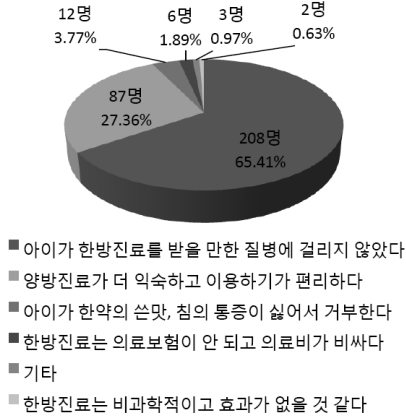


Figure 6.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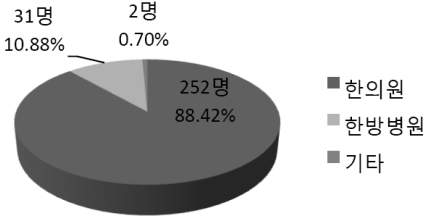


Figure 7. 한방진료 받은 의료기관(복수응답)

2. 대상군의 한방소아과에 대한 이용실태

1) 자녀의 한방진료 경험 유무

응답자의 자녀가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33%이었으며,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61.67%이었다(Figure 4).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중 제일 처음 한방진료를 받은 나이에 대해서는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이 37.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이 28.68%로 많았다(Figure 5).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중 진료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한방진료를 받을 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답한 사람이 65.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방진료가 더 익숙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27.36%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약 재료의 농약 성분 등의 독소가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주변에 신뢰할만한 소아용 한약방이 없다’

등이 있었다(Figure 6).

2) 자녀의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선호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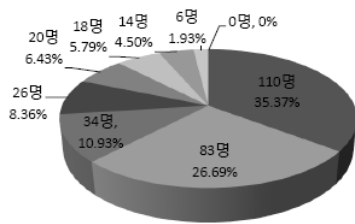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중 한방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은 한의원이 88.42%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이 10.8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타 이용기관으로 ‘의료기관 병원 한방과’, ‘양한방 통합병원’ 등이 있었으며, 기타 이용기관을 이용한 사람 모두 한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Figure 7).

한의원을 이용한 경우 중 소아전문 한의원을 이용한 경우는 35.19%이었으며, 일반 한의원을 이용한 경우는 64.81%이었다.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우 중 한방 소아과를 이용한 경우는 19명으로 95%이었으며, 기타과를 이용한 경우는 1명으로 5%이었는데, ‘피부과’를 이용하였다고 답하였다(Table 2).

한방 진료 의료 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

Table 2. 한방진료 받은 의료기관(복수응답)

Variable	Frequency	Percent
한의원	252	88.42
한방병원	31	10.88
기타	2	0.70
소아 전문 한의원	82	35.19
일반 한의원	151	64.81
한방 소아과	19	95.00
기타과	1	5.00



-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
- 그곳의 명성과 신뢰때문에
- 편리한 교통
- 기타
- 소아과를 가기위해
- 언론 및 인터넷 광고, 블로그 등을 보고
- 한방 및 양방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 다른 병원 및 의원의 권유
- 의료비가 저렴하여

Figure 8. 의료기관 선택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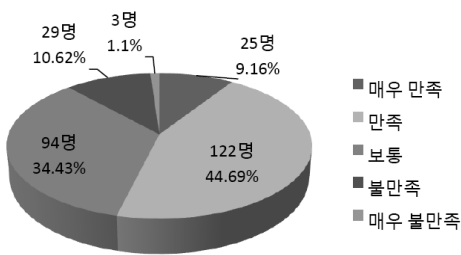


Figure 10. 한방진료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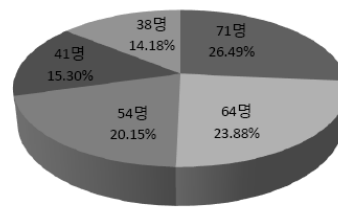
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가 35.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곳의 명성과 신뢰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이 26.69%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녹용을 먹이기 위해', '양약보다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 걸진 기관이라서' 등이 있었다(Figure 8).

3) 한방진료 선택 이유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중 한방진료를 받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방진료도 하면서 한방진료도 같이 받게 하고 싶어서'가 26.49%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3.88%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양방진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진료나 한약이 더 효과가 있어서'가 20.1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보약을 위해'라는 의견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기에 자주걸려서'라는 의견이 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한약은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서', '원인을 다스리는 치료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Figur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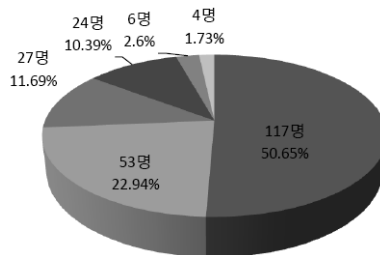
4) 한방진료 만족도

아이에게 받게 한 한방진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문항에는 53.85%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 양방진료도 하면서 한방진료도 같이 받게 하고 싶어서
- 기타
- 양방진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진료나 한약이 더 효과가 있어서
- 부모 자신이 한방진료로 효과를 본 경험이 있어서
- 양약을 복용하게 하기 싫어서

Figure 9. 한방진료 선택 이유



- 치료 효과를 보았다
- 진료시간이 길고 성의가 있었다
- 진료시간이 짧고 성의가 없었다
- 기타
- 의료시설이 좋았다
- 진료비가 적절하였다

Figure 11. 한방진료 만족 이유

34.43%가 보통이라고 하였고, 11.72%가 불만족한다고 하였다(Figure 10).

한방진료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치료 효과를 보았다'가 50.65%로 가장 많았고, '진료가 친절하였다'가 22.9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의료시설이 좋았다'는 6명인 2.60%가 답하였는데 '의료시설이 좋았다'만 단독으로 만족한 경우는 없었고, 치료효과가 있거나 진료가 친절한 경우 등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같이 만족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복용중이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성장기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양약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Figure 11).

진료 받은 한방진료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치료 효과가 없었다'가 62.16%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가 비쌌다'가 27.03%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진료시간이 짧고, 성의가 없었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아이가 한약 자체를 먹지 않아서 그대로 다 버리게 되었다', '약이 쓰고 양이 많아 마시지 못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Figur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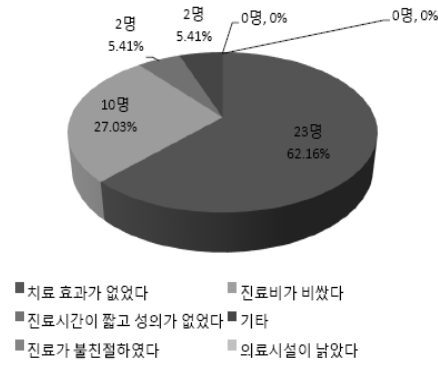


Figure 12. 한방진료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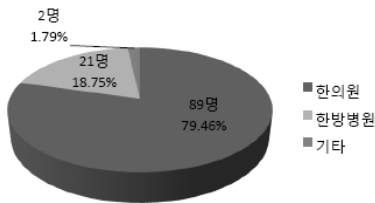


Figure 14. 주로 이용하는 특정 한방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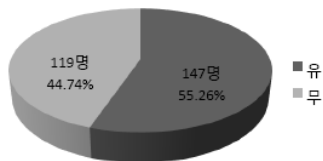


Figure 16. 2009년 한방진료 경험 유무

5) 특정 한방 의료기관 이용 유무

아이의 질환에 대하여 특정 한방 의료기관을 정해서 이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50.44%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49.56%가 ‘정해져 있다’고 답하였다(Figure 13).

주로 이용하는 특정 한방 의료기관이 있다고 답한 경우 중 주로 이용하는 한방 의료기관은 한의원이 79.46%로 가장 많았고(Figure 14), 이용하는 이유로는 ‘그 곳의 명성과 신뢰성 때문에’라는 답이 37.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그 곳에서 효과를 본 적이 있거나 가족이 모두 이용하는 곳이라서’라는 답변이 22.04%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양약이 듣지 않고 길어서’라는 답변 등이 있었다(Figure 15).

6) 2009년 1년간 한방진료 경험 유무

2009년 1년간 아이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55.26%가 있다고 답하였고, 44.74%가 없다고 답하였다(Figur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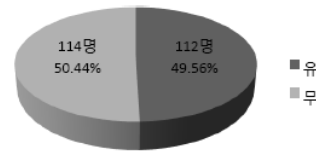


Figure 13. 특정 한방 의료기관 이용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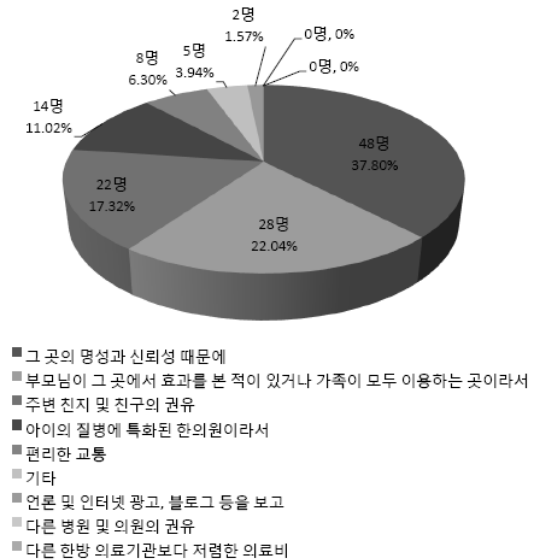


Figure 15. 특정 한방 의료기관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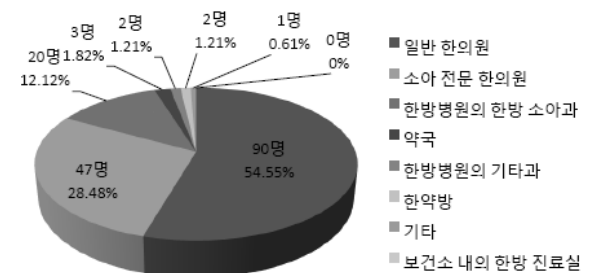


Figure 17. 2009년 한방진료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 (복수응답)

7) 2009년 1년간 한방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 (복수응답)

2009년 1년간 아이의 한방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복수응답)으로는 일반 한의원이 54.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아 전문 한의원이 28.48%로 많았다. 약국과 한약방을 이용한 경우도 1.82%, 1.21% 있었으나 보건소 내의 한방 진료실을 이용한 경우는 없었다(Figure 17).

8) 2009년 1년간 질환별 자녀의 한방진료 이용 실태

2009년 1년간 아이의 한방진료를 받은 증상 중, 영아기(0세~12개월 미만)에는 호흡기 증상이 34.4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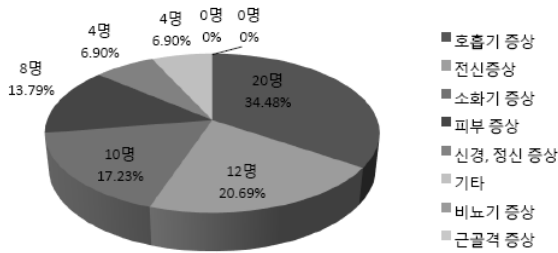


Figure 18. 2009년 영아기 질환별 한방진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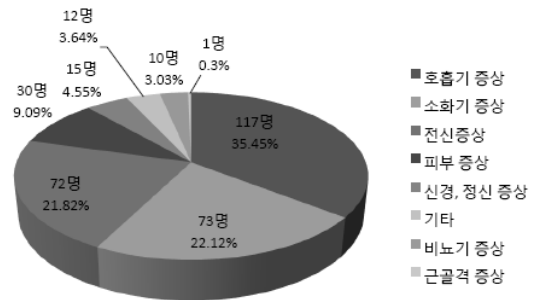


Figure 19. 2009년 유아기 질환별 한방진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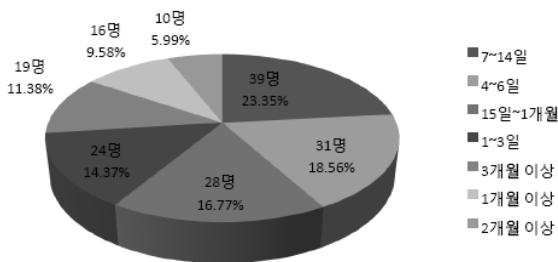


Figure 20. 한방진료 시 평균 치료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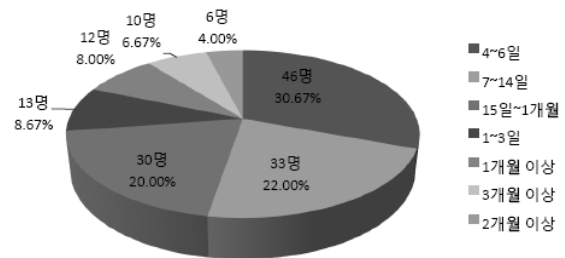


Figure 21. 한방진료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치료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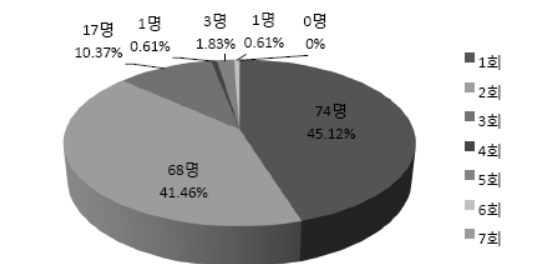


Figure 22. 한방진료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문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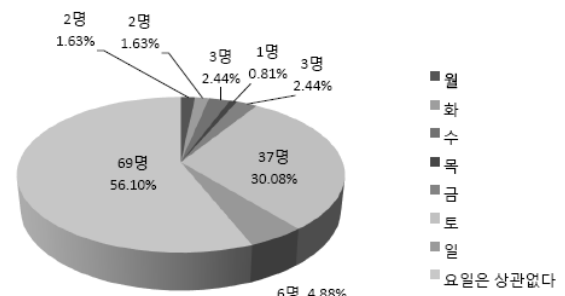


Figure 23. 한방진료시 선호 요일(복수응답)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허약, 발열, 땀 등의 전신증상이 20.69%로 많았다(Figure 18).

유아기(만 1세~만 7세)에 한방치료를 받은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이 3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화기 증상이 22.12%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부분이 체력보강을 위해, 보약을 먹이기 위해 한방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9).

9) 한방진료 시 평균 치료 기간

아이의 한방진료시 한 가지 질병에 대한 평균 치료 기간에 대해 7일~14일 소요된 경우가 23.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6일 소요된 경우가 18.56%로 많았다(Figure 20).

한 가지 질병에 대한 평균 치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30.67%가 4~6

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14일이 22.00%로 많았다(Figure 21).

10) 한방진료시 방문 횟수 및 요일, 시간

아이의 한방진료시 의료기관에 주 몇 회 방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주 1회가 45.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 2회가 41.46%로 많았다(Figure 22).

한방진료시 방문하기 좋은 요일(복수응답)으로 56.10%가 '요일은 상관없다'고 답하였고, 30.08%가 '토요일'이라고 답하였다(Figure 23).

한방진료를 위해 야간진료 이용시 방문하기 좋은 요일(복수응답)으로는 63.04%가 '요일은 상관없다'고 답하였고, 16.67%가 '금요일', 11.59%가 '토요일'이라고 답하였다(Figur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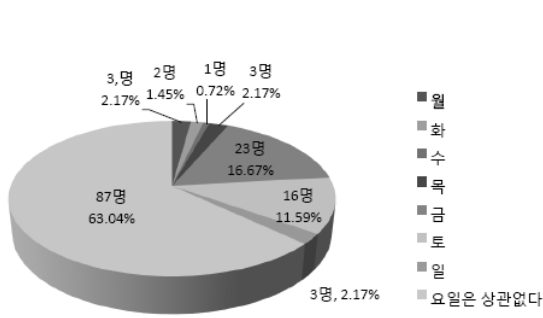


Figure 24. 야간진료시 선호 요일(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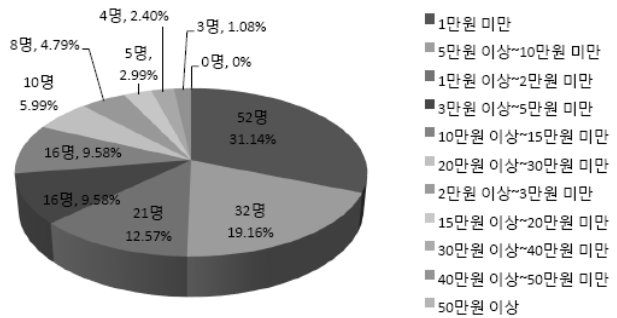


Figure 25. 한방진료 1회 이용시 평균 지불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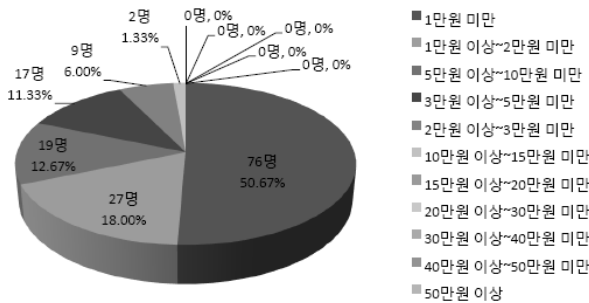


Figure 26. 한방진료 1회 이용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지불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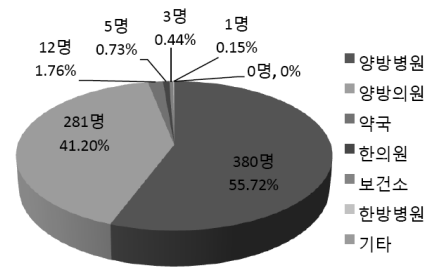


Figure 27.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

11) 한방진료 1회 이용시 지불한 평균 비용

아이의 한방진료 의료기관에 1회 이용시 지불한 평균 비용을 묻는 질문에 31.14%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9.16%가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였다(Figure 25).

한방진료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회 이용 지불 비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0.67%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18.00%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12.67%로 많았으나 15만원 이상으로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Figure 26).

12)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5.72%가 '양방병원'을 찾는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41.20%가 '양방의원'을 찾는다고 하였다(Figure 27).

13) 아이에게 한방진료 시 걱정 되는 점(복수응답)

아이에게 한방진료 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한약의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걱정된다'가 18.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치료받기에 너무 어렵다'가 17.90%, '한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된다'가 1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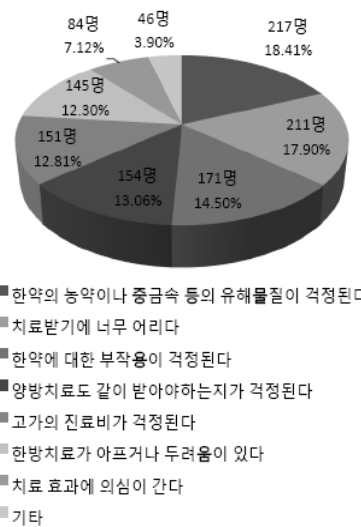


Figure 28. 아이의 한방진료시 걱정되는 점(복수응답)

'양방치료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가 걱정된다'가 13.06%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한약이 써서 아이가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한 경우가 7명 정도 있었으며, '양방치료가 대중화되어있어서'라는 의견이 5명, '한방진료를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의견이 5명 있었다(Figure 28).

14)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선호 제형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선호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끓인 형태가 47.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물에 타 먹는 형태가 34.50%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젤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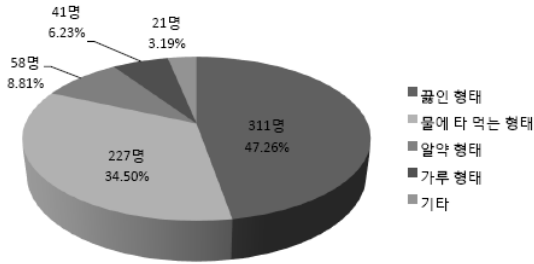


Figure 29.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선호 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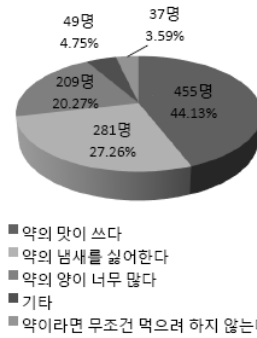


Figure 30.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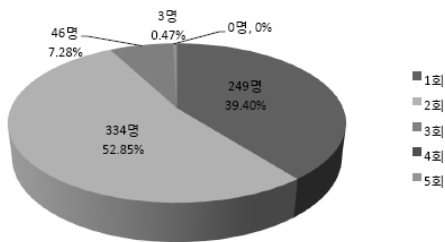


Figure 31.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일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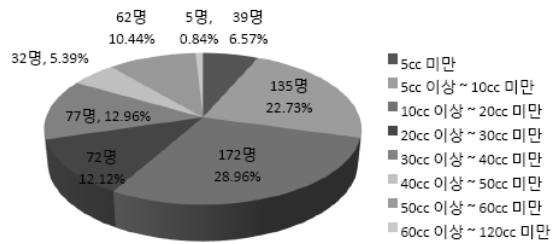


Figure 32.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회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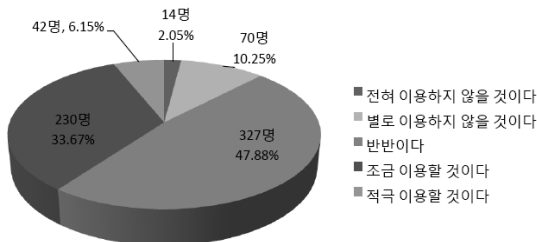


Figure 33. 향후 아이에게 한방진료 받게 할 의향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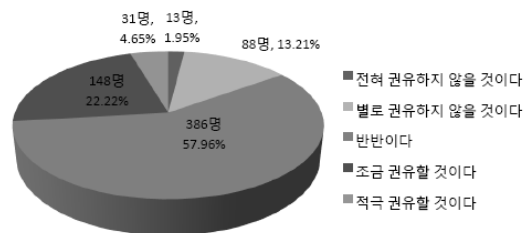


Figure 34. 다른 사람에게 한방 권유 의향 유무

태, 증류한약, 양약과 같은 형태 등이 있었다(Figure 29).

15)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약의 맛이 쓰다'고 답한 사람이 44.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의 냄새를 싫어한다'가 27.26%, '약의 양이 너무 많다'가 20.27%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가 12명, '어려운 점 없다'는 의견이 16명 있었다(Figure 30).

16)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횟수 및 용량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하루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하루 2회'가 적당하다고 답한 사람이 52.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루 1회'라고 답한 사람이 39.40%로 많았다(Figure 31).

아이에게 한약 복용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회 용량에 대해서는 '10cc 이상~20cc 미만'이 28.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cc 이상~10cc 미만'이 22.73%로 많았다(Figure 32).

17) 향후 아이에게 한방진료를 받게 할 의향 유무

향후 아이에게 한방 치료를 받게 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반반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47.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금 이용할 것이다'는 사람이 33.67%로 많았다(Figure 33).

18) 다른 사람에게 한방 권유 의향 유무

향후 다른 사람에게 한방진료를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 '반반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57.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금 권유할 것이다'는 사람이 22.22%로 많았다(Figure 34).

IV. 考察

우리 나라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존하는 독특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양방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민의료수요의 변화와 대체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더불어 한방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¹⁴⁾.

또한 과거에는 감염증과 영양장애가 소아 질병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경제 생활의 향상과 예방 접종 발달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반면 최근에는 고영양, 운동 부족으로 인한 소아 성인병의 증가, 바이러스성 감염, 알레르기성 질환, 악성 종양, 선천성 기형 등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외적이고 미적인 면에 대한 관심으로 소아 비만과 성장 장애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¹⁵⁾.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실정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심각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와 해열제 등의 오남용으로 소아들의 면역력, 즉 자연 치유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과거에는 수험생과 성인에 많았던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 시간이 갈수록 발병 연령이 낮아져 현재는 영유아를 비롯한 소아 알레르기 환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체질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최근 들어 한방 소아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¹⁰⁾.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한방 소아과만의 단독적인 진료 영역의 구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분야 및 의료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 실정상 환자들의 중복 진료 및 의료 기관 선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2010년 5월 성동구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아의 한방 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33%로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시행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조사⁹⁾ 결과인 86%와 1995년에 실시된 최⁴⁾등의 논문인 81.0%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가 어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거나 소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해도 조사 대상자가 한방소아과에 대해 알고 있는 한방병원 내원자들로 한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방진료를 최초로 받은 어린이의 나이는 최⁴⁾의 논문에서는 만 2세가 28.7%로 가장 많았고, 생후 3개월~1년이 19.3%, 3세가 11.5%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2~24개월 미만이 3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만 2세~만 3세 미만이 28.68%로 높게 나타나 1995년에 비해 한방진료를 받는 연령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65.41%가 ‘아이가 한방진료를 받을 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27.36%가 ‘양방진료가 더 익숙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유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였고, 소아 치료에 있어 한방 소아과 영역에 대한 인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진료 받은 의료기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88.42%가 한의원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64.81%가 일반 한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10.88%는 한방병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중 95%는 한방 소아과를 이용하였다. 이는 최⁴⁾등의 연구에서 조사된 한의원 52%, 한방병원 29.1%, 한약방 13.9%, 약국 3.3%와 비교하여 한의원 이용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한방진료에 대해 한약방이나 약국 이용이 15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35.37%가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6.69%가 ‘그 곳의 명성과 신뢰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2008년 조사⁹⁾에서는 55.3%가 ‘주변 이야기와 관습’이라고 답하였고, 1995년 조사⁴⁾에서는 50.0%가 ‘주위사람이 권해서’라고 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의 권유로 인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방진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26.49%가 ‘양방진료도 하면서 한방진료도 같이 받게 하고 싶어서’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0.15%가 ‘양방진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진료나 한약이 더 효과가 있어서’라고 답하였다. 2008년 조사⁹⁾에서는 36.5%가 ‘양방치료도 하면서 동시에 한방치료도 하고 싶어서’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32.9%가 ‘양방치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치료가 더 효과가 있어서’라고 답해 한방진료 선택 이유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진료 받은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9.16%, 만족 44.69%로 53.85%가 만족한 편이었

다. 이는 2008년 조사⁹⁾된 3.8점(5점 만점)의 만족도와 비슷한 결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불만족한 경우는 11.72%정도 되었다. 만족한 이유로는 '치료 효과를 보았다'가 50.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2.94%가 '진료가 친절하였다'고 답하였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62.16%가 '치료 효과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7.03%가 '진료비가 비쌌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2008년 조사⁹⁾ 결과와 같았다. 또한 불만족 이유에 '의료시설이 낡았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만족 이유에도 '의료시설이 좋았다' 단독으로만 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진료 만족도에 있어 치료 효과나 친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의료 시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이의 질환에 대해 특정 한방 의료기관을 정해서 이용하는지에 대해 49.56%가 정해져 있다고 답하였고, 이용하는 특정 한방 의료기관으로 79.46%가 한의원이라고 답하였다. 특정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7.80%가 '그 곳의 명성과 신뢰성 때문에'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2.04%가 '부모님이 그 곳에서 효과를 본 적이 있거나 가족이 모두 이용하는 곳이라서'라고 답하였고, 17.32%가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라고 답하였다. 이는 처음 선택 시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이용 시 명성과 신뢰, 효과 등이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 중 2009년 1년간 아이가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55.26%가 있다고 답하였는데, 2008년 조사⁹⁾에서는 45.8%가 2008년 1년간 진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5.26%이므로, 실제 모든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21.18%가 2009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기존 조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판단된다.

2009년 진료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시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복수응답)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4.55%가 일반 한의원을 이용하였고, 28.48%가 소아 전문 한의원을 이용하였다고 답하였으며, 12.12%가 한방병원의 한방 소아과를 이용하였다고 답하였다. 대상이 소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과 달리 소아를 전문으로 보는 곳 보다는 일반적인 한의원을 주로 이용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직 한방 소아과 영역이 양방 소아과 만큼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09년 1년간 한방진료 받은 질환으로 12개월 미만의 영아기는 감기, 중이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이 3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허약, 발열, 다한 같은 전신 증상이 20.69%로 많았다. 만 1세에서 만 7세까지의 유아기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3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욕부진, 복통, 구토,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이 22.12%로 많았으며, 전신 증상이 21.8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1995년 조사⁴⁾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2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욕부진 17.0%, 소화기 질환 10.6% 순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소화기 증상에 식욕부진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와 같이 식욕부진이 포함된 소화기 증상으로 본다면 소화기 증상으로 치료 받은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010년 경희의료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연구¹⁶⁾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질환 계통으로 호흡기, 성장, 보약, 소화기, 신경·정신, 피부 순서였고, 만 1~6세에서는 호흡기 계통이, 만 1~3세에서는 보약, 만 4~6세에서는 비부동염이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유아기인 것을 감안하면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방진료시 한 가지 질병의 평균 치료 기간으로 7~14일이 23.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6일이 18.56%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15일~1개월이 16.77%로 많았다. 한방진료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치료기간으로는 4~6일이 30.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14일이 22.00%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5일~1개월이 20.00%로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병에 대해 평균 치료 기간이 짧기를 원하였고, 일주일 이내로 낫기를 선호하였다.

한방진료시 방문횟수에 대해 주 1회가 45.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2회가 41.46%로 많았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 1~2회만 방문하여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자주 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방진료시 방문하기 좋은 요일(복수응답)로는 56.10%가 요일에 상관없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08%가 토요일, 4.88%가 일요일이라고 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말 진료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야간 진료시 방문하기 좋은 요일(복수응답)로는 63.04%가 요일은 상관없다고 답하였고, 16.67%가 금요일, 11.59%가 토요일이라고 답하였다. 2008년 조사된 김¹⁷⁾의 연구에 따르면 정규 시간으로 인해 진료를 미루거나 받지 못

한 경우는 41%이고, 정규 시간 연장시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97%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장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선호 요일과 야간 진료시 선호 요일을 조사해본 결과 요일에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진료시 선호 요일로는 주말이 가장 높았으며, 야간 진료 선호 요일로는 금요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아는 소아의 특성상 혼자 병원을 내원할 수가 없는데, 최근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증가하여 평일에는 소아를 데리고 병원을 내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방 의료기관 1회 방문시 지불하는 평균 비용으로 31.14%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9.16%가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보약을 짓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 쓴 비용으로 생각된다.

한방 의료기관 1회 방문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지불 평균 비용으로는 1만원 미만이 50.67%,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18.0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12.67%로 답해 과반수 이상이 1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양방 소아과의 경우 보험적용으로 1만원 미만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한방 소아과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한방에도 보험 적용부분을 확대하여 더욱 저렴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으로는 양방병원 55.72%, 양방의원 41.20%, 약국이 1.76%, 한의원이 0.73%, 한방병원이 0.15%로 96.92%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양방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한방 소아과 영역에 대한 인식 부족인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양방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08년 조사⁹⁾에 따르면 환자가 질병 발생시 처음으로 가는 기관으로 '양방의원'이 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국'이 33.5%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이용 경험별로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양방의원'을 찾는다는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는 '약국'을 찾는다는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조사와 비교해보면 양방 의료기관을 찾는 %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아이가 아플 때 약국보다는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아이를 한방진료 받게 할 때 걱정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한약의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걱정된다'가 18.41%로 가장 많았고, '치료받기에 너무 어렵다'가 17.90%, '한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된다'가 14.50%, '양방치료도 같이 받아야하는지가 걱정된다'가 13.06%, '고가의 진료비가 걱정된다'가 12.81%, '한방치료가 아프거나 두려움이 있다'가 12.30%로 나왔다. 2008년 조사⁹⁾에서는 '고가의 진료비'가 2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양방진료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 여부' 22.8%, '한방치료의 효과' 22.6%, '침이나 한약의 부작용' 20.2%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5회 이상 치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¹⁰⁾에서는 '가격이 비싸다'가 33.5%로 가장 많았고, '먹이기 힘들다'가 27.7%,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가 27.2% 순이었다.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한방진료시 걱정되는 점으로 비싼 비용보다 한약의 유해물질이나 진료받기에 너무 어렵다는 등의 아이의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약의 안전성 확보가 한방 소아과를 확대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한방의료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이의 한방치료에 있어 통증이나 두려움 없이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아이의 한약 복용시 선호하는 제형으로는 끓인 형태가 47.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물에 타 먹는 형태가 34.50%로 많았는데, 2008년 조사⁹⁾에서는 끓인 형태가 5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알약형태가 34.3%, 물에 타먹는 형태가 4.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아이기 때문에 알약형태를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소아 한약 복용시 어려운 점으로 '약의 맛이 쓰다'가 44.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약의 냄새를 싫어한다'가 27.26%, '약의 양이 너무 많다'가 20.27%로 나타났다. 1995년 조사⁴⁾에서는 '약이 쓰고 냄새가 난다'가 43.4%, '약을 달이기가 불편하다'가 29.5%, '약이라면 무조건 먹으려 하지 않는다'가 16.4%로 나타났는데, 이로 비추어볼 때 대부분 약의 맛이 쓰고 약의 냄새 때문에 한약 복용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젤리, 좌약, 도포제, 비누나 화장품, 모발제 등 다양한 제형들이 개발되고 있고¹⁸⁾, 앞으로 이런 다양한 제형제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1일 한약 복용횟수로 는 2회가 52.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회가 39.40%, 3회가 7.28%로 나타났으며, 1회 용량으로는 10cc 이상~20cc 미만이 2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cc 이상~10cc 미만이 22.7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cc 이상~40cc 미만이 12.9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약이 쓰고 아이가 잘 먹고 싶어하지 않아 적은 용량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아이에게 한방진료를 받게 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47.88%가 반반이라고 답하였고, 33.67%가 조금 이용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6.15%가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답하여 39.82%가 한방진료를 받게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⁹⁾에 의하면 66.9%가 향후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반이라고 답한 중립적인 입장을 제외하고,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12.30%에 비해 이용하겠다는 답한 경우가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한방치료를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57.96%가 반반이라고 하였고, 22.22%가 조금 권유할 것이라고 하였고, 4.65%가 적극 권유할 것이라고 답해 26.84%가 권유할 의향을 보였다. 2008년 조사⁹⁾에서는 58.3%가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반반이라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의향이 없다고 한 경우는 15.16%로 1.77배 정도가 권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소아를 자녀로 둔 일반인들에게 있어 아직까지 한방 소아과에 대한 인식 및 이용율이 낮고,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고가의 진료비 등이 한방진료 이용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타개하기 위해 허¹⁹⁾, 강²⁰⁾, 서²¹⁻⁴⁾등 많은 사람들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의 인식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한약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소아의 한방진료 시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양방진료와 비교 시 고가의 진료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엑스산제의 이용 확대 및 다양성 확보가 필요해보이며, 현재 비보험 항목인 탕약 등의 빠른 보험급여화 실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말 진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진료시간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성동구라는 지역적인 제한점과 설문지 문항의 미흡함 등으로 소아의 한방진료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문항의 적절한 개발 및 대상 지역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소아의 한방진료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방 소아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 結論

설문지를 통하여 성동구내 어린이집 어린이 792명을 대상으로 소아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문에 응한 인원은 총 802명이었으며,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792부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연령은 만 1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기가 720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는 1세 미만과 7세 이상이었다.
2.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33% 이었고, 최초 한방진료를 받은 나이는 12~24개월 미만이 37.60%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진료받은 곳(복수응답)으로는 한의원인 88.42%로 가장 많았다. 한방진료 의료기관을 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가 35.37%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진료를 받은 이유로는 양방진료도 하면서 한방진료도 같이 받게 하고 싶어서가 26.49%로 가장 많았다.
3.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53.85%가 만족한 편이었으며, 만족한 이유로 치료 효과를 보아서가 50.65%, 진료가 친절하여서가 22.94%로 나타났으며, 11.72%가 불만족하였는데 그 이유로 치료 효과가 없었다가 62.16%, 진료비가 비쌌다가 27.03%로 나타났다.
4. 아이의 질환에 대한 특정 한방기관 이용 유무는 특정 한방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49.56%이었고, 그 중 79.46%가 한의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용 이유에 대해 37.80%가 그 곳의 명성과 신뢰성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22.04%가 부모님이 그 곳에서 효과를 본 적이 있거나 가족이 모두 이용하는 곳이라서라고 답하였다.
5.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중 2009년 1년간 한방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55.26%

- 이었으며, 그 중 54.55%가 일반 한의원을 이용하였고, 28.48%가 소아 전문 한의원을 이용하였으며, 12.12%가 한방병원의 한방 소아과를 이용하였다(복수응답).
6. 2009년 1년간 한방진료 받은 질병으로 영아기는 호흡기증상, 전신증상, 소화기증상, 피부증상, 신경·정신 순이었으며, 유아기는 호흡기증상, 소화기증상, 전신증상, 피부증상, 신경·정신증상, 비뇨기 증상, 근골격 증상 순이었다.
7. 아이의 한방진료시 한 가지 질병의 평균 치료 기간은 7~14일, 4~6일, 15일~1개월, 1~3일 순이었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치료 기간은 4~6일, 7~14일, 15일~1개월, 1~3일 순이었다. 한방진료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관 방문 횟수로는 주 1회, 주 2회, 주 3회 순이었고, 선호요일(복수응답)로는 56.10%가 요일은 상관없다고 답하였고, 30.08%가 토요일이라고 답하였으며, 야간진료시 선호 요일(복수응답)로는 요일은 상관없다고 답한 경우가 63.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요일 16.67%, 토요일 1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기관 1회 방문시 평균 지불 비용으로는 1만원 미만이 31.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19.16%,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12.57% 순이었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지불 비용으로는 1만원 미만이 50.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18.0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2.67% 순이었다.
8.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으로는 양방병원, 양방의원, 약국, 한의원, 보건소, 한방병원 순이었으며, 한방진료시 걱정되는 점(복수응답)으로 한약의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걱정된다가 18.41%, 치료받기에 너무 어리다가 17.90%, 한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된다가 14.50%, 양방치료도 같이 받아야하는지가 걱정된다가 13.06%, 고가의 진료비가 걱정된다가 12.81%, 한방치료가 아프거나 두려움이 있다가 12.30%로 나타났다. 선호 한약제형으로는 끓인 형태, 물에 타 먹는 형태, 알약형태, 가루형태, 기타 순이었으며, 한약 복용시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 한약 맛이 쓰다, 약의 냄새를 싫어한다, 약의 양이 너무 많다 순이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일 한약 복용횟수로 2회, 1회, 3회 순이었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회 복용시 용량은 10cc 이상~20cc 미만, 5cc 이상~10cc 미만, 30cc 이상~40cc 미만, 20cc 이상~30cc 미만 순이었다.

9. 향후 아이에게 한방진료를 받게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47.88%가 반반이라고 하였고, 39.82%가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12.30%가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한방진료를 권유하겠냐는 질문에 57.96%가 반반이라고 답하였고, 26.87%가 권유하겠다, 15.16%가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VI. 參考文獻

1. 이배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2004:1.
2. 최만규, 이준협, 이태로, 이현실, 임국환. 양·한방협진 의료기관 이용자의 인식도 및 태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2005;30(1):35-44.
3. 유왕근.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요구도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3;7(2):45-64.
4. 최윤정, 김장현. 일부 한방병원 내원자들의 소아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한의정보학회지. 1995;1(1):1-22.
5. 박성순, 남철현. 한국인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식과 행태 요인 분석. 1999;25(2):34-50.
6. 이규식, 조경숙. 한방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999;9(4):120-39.
7. 조재국. 한방의료 이용자의 한방의료에 대한 태도 및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도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4; 76-93.
8. 유한정, 이진용, 김덕근. 한방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 보호자 일반적인 인식도 조사와 한약치료후의 반응에 대한 후향적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5;19(2): 243-53.
9.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1-468.
10. 한재경, 김윤희.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소아과에 래원한 환자에 대한 실태 분석.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2):209-20.
11. 강미선, 김장현. 모 한방병원 소아과에 래원한 영아기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2;16(2):129-41.
12. 최은영, 장규태, 김장현. 모 한방병원 소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5;19(2):197-213.

13. 질병관리본부 만성조사팀. 소아 청소년 성장 곡선. 보건복지부. 2007.
14. 이규식, 조경숙. 한방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999;9(4):120-39.
15. 김덕곤 외 2명. 동의소아과 임상실습.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23.
16. 최민형, 김덕곤, 이진용. 경희의료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0;24(3):121-37.
17. 김초영, 장규태, 한윤정. 한방 소아과 외래환자의 휴일 및 평일 진료시간 연장의 필요성 및 선호시간대 조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8;22(2):171-86.
18. 정희옥. 한약재 제형, 변형 어디까지 왔나 “위기가 기회다. 한약제형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주)한방과 건강. 2006년 3월호:16.
19. 허성규, 차운엽, 김유진, 조용희, 이한, 백태현, 서형식, 박희수, 김병우, 권기록, 이승기, 유준상, 손영주, 선승호, 강희철, 서용찬. 모 한방병원 한약재내 중금속과 이산화황 함량 및 잔류농약 분석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4):948-53.
20. 강인호, 조정희, 김도훈, 심영훈, 김은경, 김종욱, 황완균, 최호영. 유통 한약재의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 유통한약재 중 잔류농약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본초학회. 2002;17(2):175-82.
21. 서창섭, 황대선, 이준경, 하혜경, 천진미, 엄영란, 장설, 신현규. 전탕 전과 후의 중금속,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의 농도변화 - 감기약을 중심으로 -. 대한본초학회. 2008;23(4):51-8.
22. 서창섭, 황대선, 이준경, 하혜경, 천진미, 엄영란, 장설, 신현규. 전탕 전과 후의 중금속,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의 농도변화 - 소화기계 약을 중심으로 -. 대한본초학회. 2009;24(1):111-9.
23. 서창섭, 황대선, 이준경, 하혜경, 천진미, 엄영란, 장설, 신현규. 전탕 전과 후의 중금속,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의 농도변화 - 십전대보탕 구성처방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회. 2009;30(4):108-17.
24. 서창섭, 황대선, 이준경, 하혜경, 천진미, 엄영란, 장설, 김종열, 이시우, 신현규. 중금속,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의 전탕 전, 후의 농도 변화 - 다빈도 태음인 사상처방을 중심으로 -.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21(1):237-46.

설문지

※ 이름과 성별 및 생년월일은 아동의 성별, 연령별 성장에 관한 통계를 위해 사용됩니다.

- 이 름:
- 성 별:
- 생년월일: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아버님 키:
- 어머님 키:
- 아이에게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질환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다음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아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 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한방진료** : 한방 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기타 한방 의료기관(한약방, 보건소 내의 한방진료실, 약국 등))에서 침구치료나 한약, 보약 등을 처방받은 모든 진료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가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1-1. 아이가 제일처음 한방진료를 받은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 ① 0~12개월 미만
- ② 12~24개월 미만
- ③ 만 2세~만 3세 미만
- ④ 만 3세~만 4세 미만
- ⑤ 만 4세~만 5세 미만
- ⑥ 만 5세~만 6세 미만
- ⑦ 만 6세~만 7세 미만

(→ 다음 질문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2. 한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아이가 한방진료를 받을 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 ② 한방진료는 비과학적이고 효과가 없을 것 같다.
- ③ 한방진료는 의료보험이 안 되고 의료비가 비싸다.
- ④ 양방진료가 더 익숙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 ⑤ 아이가 한약의 쓴맛, 침의 통증이 싫어서 거부한다.
- ⑥ 기타()

(→ 응답 후 4페이지의 12번 질문으로 이동)

2. 한방진료 경험이 있었다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한의원	② 한방병원	③ 기타 한방 의료기관 (구체적으로: _____ 예: 한약방)
↓	↓	↓
2-1-1. 진료를 받은 곳이 일반 한의원입니까, 소아 전문 한의원입니까?() ① 소아 전문 한의원 ② 일반 한의원	2-1-2. 진료를 받은 곳이 한방병원의 한방소아과입니까, 기타 다른 과입니까?() ① 한방 소아과 ② 기타 과 (구체적으로: _____ 예: 한방안이비인후과, 침구과)	
↓	↓	
2-2-1. 한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2. 한방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3. 기타 한방 의료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그 곳의 명성과 신뢰 때문에 ② 다른 병원 및 의원의 권유 ③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 ④ 편리한 교통(집에서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여) ⑤ 의료비가 저렴하여 ⑥ 한방 및 양방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⑦ 소아과를 가기 위해(소아 전문 한의원, 한방병원의 한방소아과 등) ⑧ 언론 및 인터넷 광고, 블로그 등을 보고 ⑨ 기타()		

3. 한방진료를 받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방진료도 하면서 한방진료도 같이 받게 하고 싶어서
- ② 양방진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진료나 한약이 더 효과가 있어서
- ③ 양약을 복용하게 하기가 싫어서
- ④ 부모 자신이 한방진료로 효과를 본 경험이 있어서
- ⑤ 기타()

4. 아이에게 받게 한 한방진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4-1.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치료 효과를 보았다. ② 진료가 친절하였다. ③ 진료비가 적절하였다. ④ 의료시설이 좋았다. ⑤ 진료시간이 길고 성의가 있었다. ⑥ 기타()	4-2. 만족하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치료 효과가 없었다. ② 진료가 불친절하였다. ③ 진료비가 비쌌다. ④ 의료시설이 낡았다. ⑤ 진료시간이 짧고 성의가 없었다. ⑥ 기타()

8. 아이가 2009년에 한방진료를 받게 된 것은 어떤 증상 때문이었습니까?
해당되는 증상에 모두 √표 하세요.

	영아기(0~12개월 미만)	유아기(1세~만 7세)
전신증상	<input type="checkbox"/> 허약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땀, 다한(多汗)	<input type="checkbox"/> 허약 <input type="checkbox"/> 성장부진 <input type="checkbox"/> 비만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땀, 다한(多汗)
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감기(콧물/코막힘/기침/재채기) <input type="checkbox"/> 비염 <input type="checkbox"/> 축농증 <input type="checkbox"/> 중이염 <input type="checkbox"/> 천식 <input type="checkbox"/> 기관지염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감기(콧물/코막힘/기침/재채기) <input type="checkbox"/> 비염 <input type="checkbox"/> 축농증 <input type="checkbox"/> 중이염 <input type="checkbox"/> 천식 <input type="checkbox"/> 기관지염 <input type="checkbox"/> 폐렴
소화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식욕부진 <input type="checkbox"/> 복통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식욕부진 <input type="checkbox"/> 복통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변비
피부 증상	<input type="checkbox"/> 아토피양 습진/소양 <input type="checkbox"/> 발진/두드러기 <input type="checkbox"/> 피부건조/소양	<input type="checkbox"/> 아토피양 습진/소양 <input type="checkbox"/> 발진/두드러기 <input type="checkbox"/> 피부건조/소양
신경, 정신 증상	<input type="checkbox"/> 야제(밤에 운다)/보챌 <input type="checkbox"/> 겁이 많다/예민/잘 놀란다 <input type="checkbox"/> 경련	<input type="checkbox"/> 야제(밤에 운다)/보챌 <input type="checkbox"/> 겁이 많다/예민/잘 놀란다 <input type="checkbox"/> 경련 <input type="checkbox"/> ADHD <input type="checkbox"/> 틱
비뇨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야뇨(밤에 오줌을 싣다)	<input type="checkbox"/> 야뇨(밤에 오줌을 싣다)
근골격 증상	<input type="checkbox"/> 타박/염좌(뺨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경(斜頸, 목이 삐뚤어짐)	<input type="checkbox"/> 타박/염좌(뺨 경우) <input type="checkbox"/> 척추 측만 <input type="checkbox"/> 두통/어깨통증/팔다리통증/전신관절통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통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통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9. 아이의 한방치료 시 한 가지 질병의 평균 치료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평균 치료 기간’은 진료를 받고 치료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 다닌 기간과, 약을 지었다면 그 약을 복용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① 1~3일 ② 4~6일 ③ 7~14일 ④ 15일~1개월
⑤ 1개월 이상 ⑥ 2개월 이상 ⑦ 3개월 이상



9-1. 아이의 한방치료 시 한 가지 질병의 평균 치료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3일 ② 4~6일 ③ 7~14일 ④ 15일~1개월
⑤ 1개월 이상 ⑥ 2개월 이상 ⑦ 3개월 이상

10. 아이의 한방치료 시 한방 의료기관에 주 몇 회 방문하는 것이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⑦ 7회



10-1. 방문하기 좋은 요일이 있다면 언제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월 ② 화 ③ 수 ④ 목 ⑤ 금 ⑥ 토 ⑦ 일 ⑧ 요일은 상관없다.

10-2. 아이의 한방치료를 위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야간진료(저녁 6~10시)를 이용할 때 특별히 방문하기 좋은 요일이 있다면 언제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월 ② 화 ③ 수 ④ 목 ⑤ 금 ⑥ 토 ⑦ 일 ⑧ 요일은 상관없다.

16. 아이에게 먹일 한약의 횟수는 하루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16-1. 1회 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어른의 1회 평균 용량은 120cc입니다.)

- | | |
|-------------------|--------------------|
| ① 5cc 미만 | ② 5cc 이상~10cc 미만 |
| ③ 10cc 이상~20cc 미만 | ④ 20cc 이상~30cc 미만 |
| ⑤ 30cc 이상~40cc 미만 | ⑥ 40cc 이상~50cc 미만 |
| ⑦ 50cc 이상~60cc 미만 | ⑧ 60cc 이상~120cc 미만 |

17. 부모님께서서는 향후에 아이에게 한방치료를 받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 ②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 ③ 반반이다.
- ④ 조금 이용할 것이다.
- ⑤ 적극 이용할 것이다.

18. 부모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방치료를 권유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 ② 별로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 ③ 반반이다.
- ④ 조금 권유할 것이다.
- ⑤ 적극 권유할 것이다.